

鳥 虫 魚 花 草 竹

杜

彙

十七之八

數 末



分類杜工部詩卷之十七

鳥古詩十一首

律詩二十五首

鳳凰臺

亭亭鳳凰臺北對西康州

亭亭은高貌 北對西康州는在同谷

郡호나라 〇노은鳳凰臺 北對호야도다

西伯今寂寞

鳳聲亦悠悠

于岐陽호나라悠悠는遠也 其時에鳳鳴

計〇西伯호소리도在어리업도다

山峻路絕蹤

石林氣高浮

되히노파근혜사근미자척그

도피 안 安得萬丈梯為君上上頭 萬丈인

네 음 為 하 야 웃 그 恐 有無毋離飢寒日啾啾

나 어 의 업 스 샷 기 주 리 여 치 위 我能剖心血飲

啄 慰 孤愁 내 能 히 심 통 과 피 를 바 내 야 마 시

勞 호 心 以 當竹實 炯 然 忘 外 求 血 以 當醴泉

豈徒比清流 鳳 不 飲 하 는 나 라 ○ 심 통 ○ 로 비

갓 여 르 를 當 하 면 번 드 기 밖 의 것 을 求 호 를 내

르 느 고 피 로 비 醴 泉 을 當 하 면 엇 데 호 가 물 고 하

들 씩 나 리 오 ○ 所 重 王 者 瑞 敢 辭 微 命 休 瑞 者



裒正為此群盜何淹留此是甫一思見賢人

也이라○기○은○只○은○正○하○이○를○為○하○  
노나○을○盜賊○이○어○는○어○므○리○사○리○오

朱鳳行此詩是衡州刺史陽濟攝連帥

朱鳳言야喻

君不見瀟湘之山衡山高山巔朱鳳聲嗷嗷

그디는瀟湘되해衡山의노平문보디아니  
하는다되그렛블근鳳의소리嗷嗷하듯다

側身長顧求其曹翅垂口噤心甚勞문문기  
우려기

리도라보아그무를求하느니늘개드러  
고이비버미오只○은○甚하듯다하듯다  
下

愍百鳥在羅網黃雀最小猶難逃此是喻兵

小民이 困於 征役也 一라 〇 온갓 세그므레

이 안 직 뒤 고 뒤 오 히願分竹實及螻蟻盡使

鴟梟相怒號鴟梟 노惡鳥 一니 喻盜賊 〇願은 〇恨은 恨대여 〇恨은 恨대여 〇恨은 恨대여 〇

는 화 〇恨은 恨대여 〇恨은 恨대여 〇恨은 恨대여 〇

杜鵑

西川有杜鵑東川無杜鵑涪萬無杜鵑雲安

有杜鵑西川엔 杜鵑 잇고 東川엔 杜鵑 업고

我昔遊錦城結廬錦水邊有竹一頃

餘喬木上參天錦城에 노라錦水人

杜鵑暮春至哀哀呼杜鵑暮春에 나르러 슬

其間杜鵑我見常再拜이 예셔 우더라

重是古帝魂蜀人望帝死為杜鵑호나라

生子百鳥巢百鳥不敢噴仍넛남구녀슬重호나라

為饑其子禮若奉至尊온새이 지비 샷기

鴻鴈禮를 남금맛집잇호호다



羔羊有禮太古前行飛與跪乳識序又知恩

鴻鴈已行飛而識序고羔羊은 飲乳에必跪而知恩이니라 鴻鴈과羔羊과 同장넷

前부터禮잇나니行列하야늘며 仔러져 聖

賢古法則付與後世傳聖賢이 넷法을後世

라니君看禽鳥情猶解事杜鵑言可以人而不

아오그되는 새 짐승의 새들보라 今忽暮春

間值我病經年身病不能拜浚下如送泉

문든暮春人스이에내의病이히지나문만나문의病하야能히절하지문하고는들흔

류물서 옛물속  
드시하노라

### 杜鵑行

君不見昔日蜀天子化為杜鵑似老鳥

다아나하는다昔日에蜀天子變化寄

巢生子不自啄群鳥至今為哺雛

크제덕머기디몬기든물새이제나 雖同君

臣有舊禮骨肉滿眼身羈孤

곤트나骨肉이누데그독하얏고 業工竄伏

深樹裏四月五月偏號呼나 제 호는 이 리 기 폰

스러 슈믈바 지로 이 호는 나其聲哀痛口流나 못소 매 수머 굽

血所訴何事常區區그 소 리 슬히 씌고 이 베

므스 이 리 완 뒤 상爾豈摧殘始發憤羞帶羽네區區 호는 나 오

翻傷形愚네엇테摧殘 호야 쇠아 비루수애

흔帶 호야 시믈 붓그 리며蒼天變化誰料得얼구 리 어 리믈 슬낫다

萬事反覆何所無萬事反覆何所無豈憶當

殿群臣趨프른하늘히變化 호믈 뉘혜아 리

五

대업스리오萬事의 두의힐후미어느고대  
업스리오어느殿을當하얏기든群臣의趨  
走하던이를  
스랑하리오

### 杜鵑行

古時杜宇稱望帝魂作杜鵑何微細옛時節에杜宇

를望帝라일근디너덕시杜鵑  
을되나즈미微細하도다 眺枝窺葉樹

木中搶佯瞥拔雌隨雄搶佯은疾飛  
瞥揆은憑回 白一

나나모가온디셔가디예비늘며  
나니搶佯瞥揆하야암이수  
늘조트속다 毛

衣慘黑貌憔悴衆鳥安肯相尊崇터리슬피  
감고양지

樵悴하느니尊崇하느니隳形不敢棲華屋短翮

唯願巢深叢의棲止하느니啼하느니啼하느니啼하느니

穿皮啄朽嘴欲禿기에기하고저하願하느다穿皮啄朽嘴欲禿

苦飢始得食一蟲하나하디하구하부하으하리하무하를하지

誰言養雛不自하나하심하히하주하으하려하아하흔하벌하어

嘯此語亦足為愚象하나하어하기하닐하오하디하샷하기하췌하데하제

聲音咽咽如有謂號啼略하나하오하이하말하스하미하는

與嬰兒同하나하소하리하수하으하위하려하닐하오하마하잇하느하드하스하하

大口乾垂血轉迫促似欲上訴於蒼穹

고피드려서고장외왔니우흐蜀人聞之

皆起立至今數學傳遺風

제너르리고르치여비화기迺知變化不可

窮豈思昔日居深宮嬪嬙左右如花紅

다으업수물안리로소니빛나래기픈함의嬪嬙

살어든嬪嬙이左右에블근곳고토물어느

義鶻行

스랑호  
리오

陰崖有蒼鷹養子黑栢巔은이득흔비레에프

白蛇登其巢吞噬恣朝飡비힌

雄飛遠求食비힌

雌者鳴辛酸수흔느라머리바분求하거力

強不可制黃口無半存암禽鳥之雛一口吻이

其父從西미히미세여可히잡쥐뜯문하니

歸翻身入長烟斯須領健鶻痛憤寄所宣아그

西人녀그로브터와모문드위터긴빛서

리와 설우여에 앞분 음 펠바를 보티니라 **斗上揆孤影 嗽哮來**

**九天** 此는言鶻의飛來之狀이다。北쿠우

늘로셔는 **脩鱗脫遠枝 巨顙拆老拳** 脩鱗巨

蛇고老拳은言鶻다。인비느리던가

지예셔버셔디니큰나마히늘근주머귀예 **高空得蹭蹬 短草辭蜿蜒** 蹭蹬은夫勢

니라 **高空得蹭蹬 短草辭蜿蜒** 蹭蹬은夫勢

핀塵空애셔蹭蹬호물어드니 **折尾能一掉**

**飽腸已皆穿** 니것근근리를能히흔번떨티

들위디 **生雖滅 衆雛死亦垂 千年** 사라셔비

도다 **生雖滅 衆雛死亦垂 千年** 로여러사





현머리터리주부하야잇는  
곳가르다달오물아로라잇는  
人生許與分亦

在顧眄間 言人之救難亦貴在眼前之速

義分도在도라보느  
聊為義鶻行永激壯士

肝 義鶻行을 디어 기리壯士의애를激發히노라

### 呀鶻行

病鶻卑飛俗眼醜  
每夜江邊宿衰柳 病在鶻

기나俗入의눈에더러이너기나밤  
아다고고의늘근버드레서자뜻다  
清

秋落日已側身過  
鴈飛鴉錯回首 디문고나래

하마모물기우려디나느고려기와가느  
가마괴예외오머기물도로혀보뜻다  
緊

腦雄姿迷所向踈翮稀毛不可壯  
緊惡頭

훈양조로관바를이위호소니셋  
다強神迷

復皂鵬前後村早在蒼鷹上  
精神을고듣과

취도라가물迷失호니後傑훈  
風濤颯颯

寒山陰熊羆欲蟄龍蛇深念爾此時有一擲

失聲濺血非其心  
치운외히어드위고기

藏호곡龍蛇  
기피들어돈너를이빠호반  
더터늘요물스랑호노니소리를일코피글

士詩十一  
九



將軍은 指玉兵馬也 將軍은 玉帳대 勇猛

氣運이 軒二鷹猛腦條徐墜目如愁胡視

天地頭腦에 의문노히 날 회에 드 리 엿 는 나

과사과를 보는 도 다 杉鷄竹兔不自惜孩

虎野羊俱辟易 樹下 高竹兔는 小如野兔

食竹葉이니라 辟易은 모르 드 른사라

니 샷기범과 미햇 羊 韝上鋒稜十二翻將軍

勇銳與之敵 버러우 힘강는 곧 勇猛

土寺十七

남과다로다 只 將軍樹勲起安西崐崙虞泉入

馬蹄 安西崐崙虞泉 功勲은 세여 安西에 將軍

崐崙과虞泉과 은 바 白羽 曾肉三狡獬敢決

豈不與之齊 白羽는 箭也 狡獬는 即師

軍敢夫之氣似狡獬也 라 白羽箭으로

오 은 엇데다 只 荆南芮公得將軍亦如角

鷹下翔雲 荆南人 芮公이 將軍을 이 드니 佐

다도惡鳥飛飛啄金屋安得爾曹開其群驅出

六合梟鸞鳥分惡鳥京師이啄金至은喻安史一陷

此上南一欲得王將軍하야驅賊而使君子

小入으로分也一라오모딘새라金至은

덕나니엇테네무를어더그새무를여러六

見王監兵馬使하說近山에有白黑二

鷹하羅者一久取하竟未能得하王

以為毛骨이有異他鷹하恐臘後春

生하어어騫飛避暖면勁翮思秋之甚하이

眇不可見하일야請余賦詩二首하다





以無憂○나라 ○ 鵬鳥는 하늘을 돌고러 실지  
모로 매도로 허뵈홀 디어 나와 뜻기는 세분  
공의 디나드 러 실지 기  
피시름아 나 허 늦다

黑鷹不省人間有度海疑從北極來人間

애이 슈를 슬피 디문 허 리로 소나 바라 글  
건너 北極으로 부터 몬가疑心 허 노라 正

翻搏風超紫塞玄冬幾夜宿陽臺秦築長城

이 暗紫은 시 謂之紫塞라 ○ 늘개 글고 더 비  
르 매는 라 紫塞 글 건너 오니 玄冬 애 몇 바 문

陽臺에 서 虞羅自各虛施巧春鴈同歸必見

猜 虞人 이 그 르스 의 로 제 여 공 虛히 巧  
호 문 퍼 노 소 나 보 미 그 려 기 와 흥 비 가 연

반프시나리萬里寒空祗一日金眸玉爪不

凡村萬里入치은虛空애오직흔를가리로

아린材質이  
아니로다

### 催宗文樹鷄柵

吾表劫行邁旅次展崩迫내늘거너드누를

愈風傳烏鷄秋卯方漫喫

自春

生成者隨母向百翮보로브터나이갓노

하니一百이向驅趨制不禁喧呼山腰宅호모라

도制禦호문이괴디몬호리로課奴殺青竹호차

終日憎赤幘赤幘은雄鷄冠也이라호조문

리只도록블근머리가踏藉盤案翻塞蹊使

之隔이盤과案과를블와두위타고길흔마

가히여공주음牆東有隙地可以樹高柵담

녀키원件히잇나니可히避熱時來歸問兒

所為跡히호는맛의로문노라織籠曹其

호詩十七  
호

內令入不得擲 籠은 싸그 안해 돌기 우리 잇

여나디몬 稀間可突過甬距還汚席 아드몬스

히해디러나면부으리 我寬螻蟻遭彼 아드몬스

免狐貉厄 言籠柵은無間隙則은螻蟻不遭

고러는여오와일의 應宜 은免호리라

各長幼自此均勅敵 勅敵은鬪鷄를나르니

라니와져므니와맛당히드외리야일 籠柵念 로브러센비편이골오드외리라

有修近身見損益 言以柵鷄之事로近譬人

모니 개라 오籠柵修理호물스 랑호니 明明領處

分一當剖析言宗文이宜領吾이處分其柵

이너라 히○본기외결호물다라 不昧風雨晨

亂離減憂感즐히아니호야亂離에내치르

나라더는 其流即凡鳥其氣心匪石言不失司

晨也아라○그무른상넷새나그氣運倚賴

窮歲晏撥煩去氷釋주물窮盡호노니어스

호러물어시르물싸혀업다未似尸鄉翁拍留蓋

土詩

古

千陌祝雞翁이 居尸 鄉山下 養雞千餘  
하니 라 尸 鄉 入 한 아 비 자 바 드 여 길  
흘 두 꿏 게 흙 근  
디 아 니 하 니 라

縛雞行

小奴縛雞向市賣雞被縛 鷄相喧爭  
쇼고 맛  
쇼공이 들

근의 야 저 제 룬 尙 하 야 푸 로 리 락 저 늘 들 家  
기 셴 리 리 요 문 니 버 셔 르 을 어 사 호 는 다

中厭雞食蟲蟻不知雞賣還遭烹  
들 딴 안 해 셔  
들 기 벌 어

지 와 개 야 미 와 어 구 을 아 천 고 들 기 풀 어 蟲  
도 로 허 슬 모 문 맛 날 고 들 아 디 문 호 라

雞於人何厚薄吾叱奴人解其縛  
들 리 과 사 르  
들 리 과 사 르

의게 어니 둔 거 오며 열 무리 오 내 雞 蟲 得 失  
종을 구 송 하야 모 온 거 슬 글 무라 雞 蟲 得 失

無了時注目寒江倚山閣  
言愛蟲則害雞오

其得失이 無窮也  
라 오 둡과 벌에 得 하며  
失호미 모 출 지 기 업 스 니 치 운 모 르 내 누 늘

말가 보고 밋 지  
비 비 거 슈 라

雞

紀德名標五初鳴度必三  
雞 오 首戴冠이 文

武也 오 見敵而闘 오 勇也 오 得食相呼  
義也 오 鳴不失時 오 信也 오 德은 紀

每호 매 일 후 들 다 스 가 지 를 標 하 나 나 처 殊  
음을 저 기 度 數 를 만 다 기 세 번 하 나 나 라 殊

方聽有異失次曉無慙

夔峽이 非甫의 故鄉 故로 稱殊方이라

다문사해와 두루미다 2나 次第 問俗人情

似充庖爾輩堪

言可充庖厨之饌也 風俗은 무루니 飢라

기트니 브어 베에 오인디

氣交亭育際巫峽

漏司南

亭育은 造化를 이리다 氣運이 亭育스이에 섰것스니 巫峽入漏刻하

는 아 음 남의 쉬우낏다

歸鷺

不獨避霜雪其如儔侶稀

고 避할 儔와 儔의 稀



그버디드므로 四時無失序 八月自知歸時

八여月節序를 잃티아아 늦디야 春色豈相訪 衆雜

還識機 言來春에 又至也 데서르보디아니 허리오여러갓기

도로허조가 故巢倘未毀 會傍主人飛 늘근

萬一에 허디아니 허면 모 로애 초人을 바라논 리라

燕子來 늘어舟中作라

湖南為客動 經春燕子銜泥兩度新 湖南에

도외야 신다아다 보문디내요니 舊入故園

嘗識主如今社日遠看人  
네故園에 드러 일  
주님 자 혼아 더 나

이제社日에머리  
와사리문보느다리可憐處處巢居室何異飄

飄託此身  
言南之託  
身於此  
可與燕之來巢  
로無異也

마다사는  
리이모문브터  
힘의와  
고하느  
다니  
飄飄  
輶語  
船檣

還起去穿花落水益露巾  
고간  
빛대  
에  
쉬  
말  
고  
도  
로  
나  
러  
가

고  
준  
들  
위  
므  
래  
터  
어  
논  
더  
우  
하  
므  
를  
手  
巾  
에  
저  
지  
노  
라

雙燕

旅食驚雙燕啣泥入此堂  
밥  
머  
구  
내  
드  
외  
야  
쉬  
비

의 흙머리 이지라 드應同避燥濕且復過炎

涼도당소니사더위와치위물지내리르다養

子風塵際來時道路長 風塵入그의악샷기

다기도 今秋天地在吾亦離殊方 言甫去此地

而歸故鄉을亦如燕之歸也 라오이그을

히하늘과사관스이에이시면나도佐이다문

와사흘병으리 鸚鵡

鸚鵡含愁思聰明憶別離 鸚鵡어것는나聰

鸚鵡 上卷 上七

明<sub>하</sub>야 제 하<sub>하</sub> 여 희<sub>하</sub> 여 翠<sub>하</sub> 衿<sub>하</sub> 渾<sub>하</sub> 短<sub>하</sub> 盡<sub>하</sub> 紅<sub>하</sub> 紫<sub>하</sub> 謾<sub>하</sub> 多<sub>하</sub>

知<sub>하</sub> 不<sub>하</sub> 是<sub>하</sub> 其<sub>하</sub> 知<sub>하</sub> 多<sub>하</sub> 爾<sub>하</sub> 亦<sub>하</sub> 不<sub>하</sub> 足<sub>하</sub> 未<sub>하</sub> 有<sub>하</sub> 開<sub>하</sub> 籠<sub>하</sub> 日<sub>하</sub>

空<sub>하</sub> 殘<sub>하</sub> 宿<sub>하</sub> 舊<sub>하</sub> 枝<sub>하</sub> 籠<sub>하</sub> 是<sub>하</sub> 爾<sub>하</sub> 不<sub>하</sub> 足<sub>하</sub> 未<sub>하</sub> 有<sub>하</sub> 開<sub>하</sub> 籠<sub>하</sub> 日<sub>하</sub>

다<sub>하</sub> 世<sub>하</sub> 人<sub>하</sub> 憐<sub>하</sub> 復<sub>하</sub> 損<sub>하</sub> 何<sub>하</sub> 用<sub>하</sub> 羽<sub>하</sub> 毛<sub>하</sub> 奇<sub>하</sub> 世<sub>하</sub> 옛<sub>하</sub> 事<sub>하</sub> 不<sub>하</sub> 可<sub>하</sub> 及<sub>하</sub>

야<sub>하</sub> 日<sub>하</sub> 夕<sub>하</sub> 不<sub>하</sub> 可<sub>하</sub> 及<sub>하</sub> 矣<sub>하</sub> 奇<sub>하</sub> 異<sub>하</sub> 乎<sub>하</sub> 不<sub>하</sub> 可<sub>하</sub> 及<sub>하</sub> 矣<sub>하</sub>

子規

峽<sub>하</sub> 裏<sub>하</sub> 雲<sub>하</sub> 安<sub>하</sub> 縣<sub>하</sub> 江<sub>하</sub> 樓<sub>하</sub> 翼<sub>하</sub> 瓦<sub>하</sub> 齊<sub>하</sub> 峽<sub>하</sub> 入<sub>하</sub> 安<sub>하</sub> 縣<sub>하</sub> 樓<sub>하</sub> 瓦<sub>하</sub> 齊<sub>하</sub>

兩<sub>하</sub> 邊<sub>하</sub> 山<sub>하</sub> 木<sub>하</sub> 合<sub>하</sub> 終<sub>하</sub> 日<sub>하</sub> 子<sub>하</sub> 規<sub>하</sub> 啼<sub>하</sub> 兩<sub>하</sub> 邊<sub>하</sub> 山<sub>하</sub> 木<sub>하</sub> 合<sub>하</sub> 終<sub>하</sub> 日<sub>하</sub> 子<sub>하</sub> 規<sub>하</sub> 啼<sub>하</sub>

도남기모닷느니나리모  
도룩子規 | 우는다리모  
眇眇春風見蕭蕭夜

色悽나아蕭蕭라히  
밤비치서늘흐리도다  
客愁那

聽此故作傍人低  
듣나그내시르에  
엇테이름

터는죽고  
물짓는다

### 百舌

百舌來何處重重  
祗報春  
百舌새는어드러

우러오직보  
知音兼衆語  
整翮豈多身  
소리

시여러가지말  
소문兼흐느니  
늘게를고  
花

密藏難見枝高聽轉新  
고지척척하니갈다  
보이어렵고가지노

장새 들지다  
過時如發口君側有讒人  
이百舌

轉夏止  
讒人  
이在月令에 쓴種後에 反舌이有  
聲하면 讒人이在側이라함다  
時節이디

나드록萬一에소리돌내면  
너름  
이잇나니라

### 白鳧行

君不見黃鵠高於五尺童化為白鳧似老翁

此篇은 甫 | 自喻之作이니 上句는 言少時  
고고 下句는 言衰老함다  
이그뒤는 보지아

니  
變化야  
하는 다黃鵠이대자만  
하아히키예  
늘근한아비  
고

도故畦遺穗已蕩盡天寒歲暮波濤中

다다故畦遺穗已蕩盡天寒歲暮波濤中

腥膻素不食終日忍飢西復東此不食

다다腥膻素不食終日忍飢西復東

東으로오 늦다 曹門鷓鴣亦蹭蹬聞道如今

猶避風鷓鴣는海鳥이니라避風止於曹

○魯國八門에鷓鴣이在蹭蹬하니

歸鴈二首

萬里衡陽鴈今年又北歸

萬里人衡陽  
又北歸

短短雙雙瞻客上一一背人飛

雙雙  
背人飛

가도라나라치가사  
뒤도라나라치가사  
雲裏相呼疾沙邊自宿

稀稀들들엇엇가가애애제제자자미미드드르르도도다다  
繫書無浪

語愁寂故山薇繫書다다○바바래래미미야야보보내내을을글글

위른속절업는마리업스나故鄉외했  
고사리시름도외엇거니라호노라

欲雪違胡地先花別楚雲楚雲되되니니오오고고져져거거늘늘

더나고지라와몬져楚却過清渭影高起洞



庭群 소도 로 물 고 渭庭 水 에 서 디 나 가 는 그 무 리 에 로

다 塞 北 春 陰 暮 江 南 日 色 曛 邊 塞 入 北 邊 關

傷 弓 流 落 羽 行 斷 不 堪

聞 列 化 를 슬 하 하 는 비 러 덧 는 지 치 여 行

歸 鴈

聞 道 今 春 鴈 南 歸 自 廣 州 南 歸 自 廣 州 南 歸 自 廣 州

見 花 辭 張 海 避 雪 到 羅 見 花 辭 張 海 避 雪 到 羅

浮 南 漲 海 名 이 오 羅 浮 山 名 이 나 皆 在 浮 南 漲 海 名 이 오 羅 浮 山 名 이 나 皆 在

浮능是는物물關關兵兵氣氣何何時時免免客客愁愁

年年年年霜霜露露隔隔不不

過過五五湖湖秋秋湖湖

孤孤鴈鴈

孤鴈

孤孤鴈鴈不不飲飲啄啄飛飛鳴鳴聲聲念念群群

誰誰憐憐一一片片影影相相失失萬萬

重重雲雲一一片片人人影影萬萬重重人人影影相相失失萬萬

似猶見哀多如更聞비라오매다업소뒤오  
히려보는듯하고슬픈

野鷗無意緒鳴噪自紛紛뜻하나다시  
뜻하나다시

가마괴는쁘디업스니우  
러수우미제어즈럽도다

### 歸鴈

春來萬里空亂定幾年歸보미엇는萬里엇  
나그네는亂이

腸斷江城鴈高高正北飛거든어는히에  
도라가려노

에그려기노피正히北으  
로느라가애에를곳노라

### 官池春鴈二首

自古稻梁多不足至今鷄鵝亂為群네로브

이해는 다스려서니 이제 이르러 몹시且休懷望다스려서니 이르러 몹시

看春水更恐歸飛隔暮雲슬허비라 석분

가나 젓구루에 즘음  
출가다시 전노라

青春欲盡惡還鄉紫塞寧論尚有霜미다아

가거늘 별리 본鄉으로 도라가니  
아오히려서 리이슈를 잊테  
議論하리오

翅在雲天終不遠力微矰繳絕須防늘개구

늘해이슈이  
히미져그니  
즐사룬고  
장모로  
에막조르  
라





花鴨無泥滓塔前每緩行  
 經翦孤飛卒未高  
 且無鷹隼慮留滯莫辭勞  
 羽毛知獨立黑白大分明

花鴨

花鴨無泥滓塔前每緩行  
 經翦孤飛卒未高  
 且無鷹隼慮留滯莫辭勞  
 羽毛知獨立黑白大分明

上詩一

三

은言羽毛 | 異於衆鳥也 | 然○지하獨立  
혼고든아노니가므여히요미너무分明言

中不覺群心妬休牽衆眼驚문득○내새오  
하니물누니늘라稻梁露汝在作意莫先鳴

稻梁○로너머귀이잇는니드들  
니극와다나귀게문져우디말라

鷗

江浦寒鷗戲無他亦自饒自饒는自得之意  
라○江浦에仕仕

늘흔곤여기노나드却思翻玉羽隨意  
이른업시在自饒하도다드

點春笛도로혀玉은지출두위티고저人  
랑호고비드은차북풍우네비릿도





苟不存英雄徒自強

苟不存은 나의게 자피  
실시라。性命은 곧 진실

로 두디 몬호면英雄도 호갓  
스식르세위 들부나나라  
吞聲勿復道真

宰意茫茫하소리를심  
하호브디야고다시나  
모르디말라

라

地用莫如馬無良復誰記

件했쓰미은만근  
호거시업근마는

도티아니호면  
뒤記錄호리오在此日千里鳴追風可君意

이나라千里를  
미취드라님호  
可호도  
君者渥洼種

態與駕駘異  
漢元狩三年  
馬生渥洼水中

라 양지駕駘와不雜踈齧間逍遙有能事此  
 다 못다르니라  
 是喻君子하고 다하후지 못하야能호이리잇는  
 라니

沙苑行

君不見左輔白水繚以周墻百餘里

그 뒤는 보디아니호는 다左輔잇白沙苑으  
 로 什白水縣에 나르리 들잇는 담으로 百餘  
 리를 버므龍媒昔是渥洼種汗血今稱獻於  
 此龍媒는 넷이渥洼잇베니피舍내는 苑  
 에 다가 반 좁다호야이 제나르니라

中駉牝三千匹豐草青青寒不死馬一七尺

○苑中옛駉牝이三千匹이로소니도호食

之豪健西域無每歲攻駒冠邊鄙호역고豪健

에도입도소니히마다질드론의王有虎臣

司苑門入門天既皆雲屯이님고두기신虎臣

아라인니니門의드러보니하호馬肅霜一

骨獨當御春秋二時歸至尊이驕驕人호氣骨

와두어님금애가뜻다은至尊內外馬盈億



蕩龜鼉窟

健壯호물도미도호사소이  
노름과그트니기픈므리며서龜

鼉이古금泉出巨魚長比人丹砂作尾黃金

鱗므리셔나노큰고기리사름그트니丹  
砂로워라빙근오黃金그트비느리로다

豈知異物同精氣雖未成龍亦有神須溪云  
其浴之

時에感龍精氣호야往往에與龍交也라  
다로物이로디精氣는근혼고들어느알

리오바루龍이서외다문호  
야도佐神奇호미잇도다

### 瘦馬行

東郊瘦馬使我傷骨骼碎兀如堵墻東북의  
헛여원

크리 날로 히어 슬게 하니 배  
크리 도다 맘들어 솜근도다  
絆之欲動轉

歌側此豈有意仍騰驤  
다갓거늘 위우려  
장기우려

하느이엇데 돈고겨  
細看六印帶官字衆道

三軍遺路傍  
나官字  
帶  
은子細히보

닐오리다  
三軍이  
皮乾剝落雜泥滓毛暗

蕭條連雪霜  
리치문라  
帶  
은야기  
과  
고

엇드여  
去歲奔波逐餘寇  
驂騑不慣不得將

니건히  
에  
물  
별  
듯  
다  
시  
기  
든  
盜  
賊  
을  
또  
출  
려  
리  
驂  
騑  
馬  
나  
속  
다  
아  
나  
하  
야  
시  
리  
곰  
가  
려

只和詩

三

가디디몬호 士卒多騎內廐馬惆悵恐是病乘

黃乘黃은神馬名이라○士卒이內廐잇只

노야 當時歷塊誤一蹶委棄非汝能周防

과 馘우적디나돈듯호던거시외오호번업

見人慘淡若哀訴失主錯莫無晶光보고慘

淡히슬피하는듯호니님자름 天寒遠放鷹

為伴日暮不收鳥啄瘡호늘히치은제머리

호앗다소나나리져물어늘거두디 誰家直





不則不모노平니그르메론도라보고隅目  
驕慢하우러제榮寵호물矜誇하느다

青熒夾鏡懸肉駿礮連錢動肉駿  
是肉也

礮然也 | 라連錢은馬毛文 | 如錢形而連  
也 | 라○모난느니빛나기우루른배드랏

는듯호고肉駿 | 며흔  
오니은도니위엇도다朝來少試華軒下未

覺千金滿高價  
저기초위빛난軒檻아래다타

그듯호물아디  
赤汗微生白雪毛銀鞍却覆

香羅帕  
블근하미힌는근흔터리애저기나

론帕를두  
卿家舊物公能取天廐真龍此其

亞

甫一自註太常梁卿의 勅賜馬一어늘李鄧公愛而有之호니라○公卿의 집빛物

은그의能히아아오니하호馬廐안 眞實人龍 | 오이호그버그니로다 晝洗須

騰涇渭深夕趨可刷幽并夜모로애涇水渭

水人기픈되돌여가고나조히돌여幽 州并州人바리셔可히빛기리로다 吾聞

良驥老始成此馬數年入更驚도호驥馬늘

기면아비르르미다이사늘라이리도어 豈有四蹄

疾於鳥不與八駿俱先鳴와엇데바리개라

나리호호八駿으로다못호야호 時俗造次

出詩十七

二十九



이리戰陣을臨하야오래곧오리업스니  
사공과다只호미오미외야큰功을일우

도功成惠養隨所致飄飄遠自流沙至  
功을일우

고恩惠로이바다제오노다조처오  
나飄飄히어리流沙로브러오다雄姿未

受伏櫪恩猛氣猶思戰場利  
雄壯호양조는  
말험메급스리

은오히려戰塲애늘가이로소니  
是호운  
은氣運

다腕促蹄高如踣鐵交河幾  
蹴層氷裂  
기뻐모

고구비노파의를品호호니  
交河애  
벗  
버는層層인어르믈본와배허브리나오

五色散作雲滿身萬里方  
者汗流血  
짓다  
비  
치

호러구루를지어모매크도호니萬里가長  
매외야호로호로피흔류를보리르다

安壯倪不敢騎走過掣電傾城知長安  
壯호아

도구퇴어트디몬호니그리타는번개를  
다나드로몬城中이기에모다아는다

青絲絡頭為君老何由却出橫門道  
橫音은

橫門은長安城北門이라言馬才는在於戰  
陣호니不着出橫門호야以致功也이라

프른실로머리물리야그디를為호야서늘  
나니아는말미로도도로橫門스갈호로나가

오리

李鄴縣丈人胡馬行

丈人駿馬名胡騮前年避胡過金牛迴鞭却

走見天子朝飲漢水暮靈州金牛는 蜀地名이라○丈人の

駿馬는 일후미되騮馬前年에 되를避하야 金牛를 다나가 채를 돌아 도로 돌여天

子를와보오오니야六日漢水自於胡騮奇

絶代乘出千人萬人愛되騮馬의 奇異호미一代에 그 欸고 들제

於誇호되다나기든千人萬人一聞說盡惡難

材轉益愁向駑駘車 惡難材는 如劉備의 的盧躍過檀溪호야免

劉表之追之類이라言聞胡騮之材호고自傷所乘이皆駑駘也이라○어려운지救호







北自反胡騏驎蕩盡一死無反이 제 西北에 되

騏驎이 다 업스니一龍媒真種在帝都子孫未

落西南隅龍媒는 良馬라 龍媒의 眞實

南人 모 해 잇디向非戎事備征伐君肯辛苦

越江湖萬一兵戎人이 리 사 호 매 備用아니

나오가江湖凡馬多顛顛衣冠往往乘蹇驢江

애상 只 리 해 憔悴 하니 衣冠 하사梁公富

貴於身踈號令明白人安居梁公은 富貴를 모 매 踈遠히 하

나니號令은 본기훈시사  
俸錢時散士子盡

府庫不為驕豪虛  
俸極矣도나란時로士子

驕慢하여豪華호문為하  
以茲報主寸心

赤氣却西戎迴址狄  
寸心 | 블그니氣運 |

西戎은 물리조태여北狄  
羅網群馬籍馬多

氣在驅除出金帛  
크론그물로收려잡듯

나意氣盜賊은 모라려  
劉侯奉使光

推擇滔滔才略滄溟窄  
劉侯이브리여가애  
히요매빛나니큰지

조와謀略은바르다杜陵老翁秋繫船扶病相

識長沙驛杜陵잇늘근한아비은히비를

驛에와라什強梳白髮提胡盧手兼菊花路傍

摘胡盧는酒器라고돈파히머리를밧고

兼中九州兵革浩茫茫三歎聚散臨重陽

은히兵革이해아고라고니모다이시며

當杯對客忍涕淚不覺老夫神內傷

라酒杯를當고소늘對아什은

나미 아디  
몬하 나다

# 秦州雜詩一首

南使宜天馬由來萬匹強南使止地名이니

天馬一篇은專賦天馬하니라○南使에浮雲

連陣沒秋草徧山長빛고구름이陣에니어

도타기릿聞說真龍種仍殘老驕眞實入龍

근驕驕이衰殘하얏도다哀鳴思戰鬪迥立

向蒼蒼을피우러서사호문스라하야아

玉腕騮 江陵節度使 衛公馬

聞說荆南馬尚書玉腕騮 荆南入

의 손腕 驪 日 頓 驂 飄 赤 汗 跼 踏 顧 長 楸 駿 馬

라 하 나 다 블 근 작 미 但 리 나 니 모 물 구 피 분 胡

虜三年入乾坤一戰收 되 세 히 룬 드 리 공 의

호변사화舉鞭如有問欲伴習池遊 見習池 註

言 衛 公 乘 此 馬 必 來 遊 南 家 池

에 노 로 모 언 고 池 習 池 南 家 池

房兵曹胡馬

胡馬大宛名 鋒稜瘦骨成

되므로 큰 대宛 나라  
일 흥난 거시니 관

늘 모고 든 여  
예이 렷도 다

竹批雙耳峻 風入四蹄輕

대

힌 듯 훈 두 귀 높고 비  
노 듯 훈 네 바리가 비압도다

所向無空闊

真堪託死生

알이 노가 논 뒤 든  
알피 뷔 엿 노 뒤 업 슬 시 니 이 린

도 노 무 룰 두 면 死 生 을 免 후 리 라 후 논 마 리  
라 〇 尙 후 야 가 논 바 에 뷔 여 어 윈 지 업 스 니

眞實로 작 리 미 死 生  
은 브 림 직 후 도 다

驍騰有如此 萬里可橫

行 萬里에 이 로 빛 기 터 리 로 다

病馬

乘爾亦已久天寒關塞深

在秦州作이라○

고라니하늘히침고塵中老盡力歲晚病傷

心드들소배늘도룩히물다○게투毛骨豈

殊衆馴良猶至今다터리와새아엇테모도게

니오히려이제物微意不淺感動一沉吟아物이

고맛거시나쓰디기플시感傷하

麋 麋音几니大麋也 一가



永與清溪別蒙將玉饌俱다기라몬고시내과

다가주공호차반에無才逐仙隱不敢恨庖

廚九華隱翁이與白麀로同隱하나라○仙

이베드도몬누이亂世輕全物微聲及禍樞

言聞鳴聲而獵取也○여즈러은세에

物으을와두몬하비야이더키나키고맛

소리禍樞衣冠兼盜賊號食餐用斯須號餐는

에맛도다○衣冠古고盜賊을兼호

猿



人說南州路山猿樹樹懸사극미일오디南

비나모아다돈舉家聞若駭為寄小如拳胡

오猿類니小者為貴니라○지비다는

고늘라는듯하느니저고미주억그나그물

為하야브願哂愁胡面初調見馬鞭시름하

터보내라願哂愁胡面初調見馬鞭시름하

고도물미리웃노니취엄질라許求聰慧者홀

드류면물채를뵈을디니라許求聰慧者홀

다稚捧應顛슬가오닐求호물許하느니아히

虫 律詩三首

促織

促織甚微細哀音何動人

促織甚微細哀音何動人

促織甚微細哀音何動人

促織甚微細哀音何動人

促織甚微細哀音何動人

促織甚微細哀音何動人

促織甚微細哀音何動人

促織

促織

熒火

幸因腐草出敢近太陽飛幸히 시근 프를因

가이히미체가未足臨書卷時能點客衣臨書

用車胤의囊螢照書事다○是히書卷間

知다隨風隔幔小帶兩傍林微帳문조차

적고비글디차수프十月清霜重飄零何處

歸十月에문근쉬리하거

見熒火

巫山秋夜 熒火飛簾 踈巧入坐 人衣

巫山人  
고은바

巧히 반되리니 사니 바리 드문 뒤로 고  
드러 사니 바리 오 세 안 나다 고 忽驚屋裏

琴書冷復亂 簷前星宿稀 집안 책기 문고와  
書冊의 서늘호문

문드름 놀라고 노집기 숨알 피이  
스러 우니 버리 드문 드도다 却繞井欄添

箇箇偶經花藥弄 輝輝 비도모히 우물欄주에  
비드 더 빛나 치러오

고 偶然히 고 즐디 나 가  
빛나 문호 놀이 늦다 滄江白髮愁看汝來

歲如今歸未歸 滄江에 와 취헐이  
하야 더 글브노 나 오 노히이

비도라 갈가  
문도라 갈가

魚律詩二首

黃魚

日見巴東峽黃魚出浪新 을 보나니 巴東人峽

脂膏無飼犬長大不容身 是言其

多也 長大者數百斤 이과

筒筍相沿久風雷肯為神 筒筍

魚器也 筒筍 로자보문서르沿襲

泥沙卷涎沫回首恠龍鱗 후과물엿서

土音 三下

두일엿나니 이리물도라시寵  
리이르를비異하디가노라

白小

白小群分命天然二寸魚

白小 하나 무리 목수

天然 한두寸 만

細微露水族風俗當園蔬

當

去聲 라 細微 한기시水族 은나벳도  
소니風俗 은園中 옛菜蔬 와마초나나라入

肆銀花亂傾箱雪片虛

市肆애드리나銀入  
고지어즈리은도고

箱子 를기우리나  
투이빈듯하도다

生成猶拾卵盡取義何

口나쉬이노기슬오이러알흔뜻나  
女나다지보문義에엇더하리오



分類杜工部詩卷之十七



分類杜工部詩卷之十八

花古詩三首

律詩十三首

歎庭前甘菊花

庭前甘菊移時晚青蕊重陽不堪摘言菊

既晚故曰開花已遲  
○ 採摘也  
○ 採摘也  
○ 採摘也

○ 採摘也  
○ 採摘也  
○ 採摘也明日蕭條盡醉醒殘花

爛熳開何益言重陽之後  
○ 雖爛熳開花

蕭條也  
○ 雖爛熳開花  
○ 雖爛熳開花蕭條何益言重陽之後  
○ 雖爛熳開花蕭條何益言重陽之後  
○ 雖爛熳開花



浮毛踈花披素艷  
고  
노니  
핀  
뵈  
러  
리  
큰  
씩  
차

다  
핏  
도  
深  
栽  
小  
齋  
後  
庶  
近  
幽  
人  
占  
해  
기  
피  
시  
므

니  
幽  
隱  
호  
사  
리  
리  
占  
得  
晚  
隋  
蘭  
麝  
中  
休  
懷  
粉

身  
念  
言  
丁  
香  
이  
結  
實  
하  
기  
든  
부  
아  
蘭  
草  
麝  
香

온  
뒤  
디  
리  
니  
모  
미  
부  
아  
들  
혜  
아  
르  
문  
막  
디  
말  
라

### 麗春

百草競春華  
麗春應最勝  
麗春은花名이라  
○ 온가저스프리보

비  
출  
드  
드  
스  
니  
麗  
春  
이  
당  
少  
須  
好  
顔  
色  
多  
漫

木言

枝條剝

剝은有餘也 | 다 ○ 취기아 모로에

되려하거紛紛桃李枝處處總能移如何貴

此重却怕有人知

如隱逸者 | 人雖不知나

이즈러은桃李人가저를은마다다能히은

리도취도도극히사문  
알리이살가짓는다

# 、 施子

施子比衆木人間誠未多

施子를문남의가

實로하가아  
於身色有用與道氣傷和  
施子

帛<sub>하</sub>하<sub>하</sub>나<sub>하</sub>其<sub>하</sub>性<sub>하</sub>은<sub>하</sub>冷<sub>하</sub>하<sub>하</sub>나<sub>하</sub>라<sub>하</sub>○<sub>하</sub>사<sub>하</sub>극<sub>하</sub>미<sub>하</sub>모<sub>하</sub>면  
 비<sub>하</sub>치<sub>하</sub>날<sub>하</sub>디<sub>하</sub>잇<sub>하</sub>고<sub>하</sub>道<sub>하</sub>와<sub>하</sub>디<sub>하</sub>곳<sub>하</sub>하<sub>하</sub>안<sub>하</sub>氣<sub>하</sub>運<sub>하</sub>이<sub>하</sub>溫<sub>하</sub>和<sub>하</sub>  
 호<sub>하</sub>를<sub>하</sub>傷<sub>하</sub>라<sub>하</sub>紅<sub>하</sub>取<sub>하</sub>風<sub>하</sub>霜<sub>하</sub>實<sub>하</sub>青<sub>하</sub>者<sub>하</sub>雨<sub>하</sub>露<sub>하</sub>荷<sub>하</sub>란<sub>하</sub>반<sub>하</sub>그<sub>하</sub>림  
 과<sub>하</sub>시<sub>하</sub>리<sub>하</sub>엿<sub>하</sub>어<sub>하</sub>르<sub>하</sub>를<sub>하</sub>바<sub>하</sub>고<sub>하</sub>프<sub>하</sub>르<sub>하</sub>라<sub>하</sub>無<sub>하</sub>情<sub>하</sub>移<sub>하</sub>得<sub>하</sub>汝  
 貴<sub>하</sub>在<sub>하</sub>映<sub>하</sub>江<sub>하</sub>波<sub>하</sub>를<sub>하</sub>너<sub>하</sub>를<sub>하</sub>운<sub>하</sub>겨<sub>하</sub>올<sub>하</sub>브<sub>하</sub>디<sub>하</sub>임<sub>하</sub>수<sub>하</sub>은<sub>하</sub>그<sub>하</sub>림  
 라<sub>하</sub>니<sub>하</sub>

風雨看舟前落花戲為新句

江上人家桃樹枝春寒細雨出疎籬

影遭碧水平  
 桃樹入  
 影遭碧水平

亦言十一

潛句引風妬紅花却倒吹그르에는프른모

吹花困懶旁舟

楫水光風力俱相怯怯은懼也

赤憎輕薄遮人懷

珍重分明不來拚赤憎은猶生憎也

濕爨

飛蓬半欲高縈沙惹草細於毛고저주의도라

티오후안노피오루고취후나물애에비



蜜蜂胡蝶生情性偷眼蜻蜓避伯勞

伯勞鳥

惡鳥故曰蜻蜓避其害也

伯勞鳥

和裴迪登蜀州東亭送客

早梅相憶見寄

東閣官梅動詩興還如何遜在揚州

早梅詩云不知東閣梅開未梅花

此時對雪遙相憶送客逢春可自由

五言詩



히後에 絶知春意早 最柰客愁何 그 장 못 바  
다 일 우물

아노니 안직나 그내 雪樹元同色 江風亦自

波 눈왓 눈나 모와 본더 호바치 로소니 그故

園不可見 巫岫鬱嵯峨 我故園은 指長安杜陵

보디 못하 리노니 巫山人  
밋부리 鬱蔚然 리놈 도다

### 早花

西京安穩未不見 一人來 廣德三年에 吐蕃  
이 陷京이 어 들 代

宗이 幸陝호시 니라 西京은 편안 호가 臘  
은 호가 호사 루 위 음 도 보 디 못하 리 로 다

月已江曲山花已自開  
江入구곡에

盈盈當雪杏豔豔待春梅  
盈盈은美女の  
端麗貞이라

고오나논보물기플우논梅花로다  
直苦

風塵暗誰憂容鬢催  
風塵은指兵亂이라  
○은風塵의어두우들

苦로이너기고나나그내구민  
세음뵈아물뉘시

### 花底

紫萼扶千藥黃鬢照萬花  
붉은그고조즈은藥  
붉은扶持가얏고누

붉은입기우준萬花  
忽疑行暮雨何事入朝霞

此言如神女一行雨於暮而又入朝霞之中  
 中이니皆羨花色之艷也이라○나죄비물  
 테노가큰득疑心하다니므矣恐是潘安縣  
 일로다참雲霞애드릿누니오  
**堪留衛玠車**  
 潘安仁一為河陽縣令하야植  
 市어논見者一以為玉人○하니라○이  
 潘安의고을힌가천느니衛玠손위글머을  
 임주하深知好顏色莫作委泥沙  
 드다  
 아노니泥沙애브리여쇼  
 물드외디마를디어다쇼

江畔獨步尋花七絕句

江上被花惱不徹無處告訴只顛狂  
 고름우희고지

村言

호노 요물마디아니 흠을니 버슴許홀  
走覓

南隣愛酒伴經旬出飲獨空林  
斯離自註解

徒이라○南덕이 우젼술스랑ㅎ는베들  
라가어터열흐리기박드록나가쉬머구니

호보아平林  
이뵈엇도다

稠花亂葉裏江濱行步歌危實怕春  
한공과

은고지그은은베렛스니거러든노문기  
우려어려이호은眞實로보미판가지혜니

라詩酒尚堪驅使在未須料理白頭人  
言雖

나尚可以當詩酒之後也  
白頭人은南

히려이귀리로소니구티여머리선사  
근마라하야해아리다마를디나라

江深竹靜兩三家多事紅花映白花

寂靜호두어지벽어즈러은블報答春光知  
근고지힌고즐비취엇도다

有處應須羨酒送生涯  
수를머기人生보내  
요미春光報答하는

이리라○북빛가플타이쇼문아노나당당  
이도로매도호슬로人生은보개올디로다

東望少城花滿烟百花高樓更可憐  
在成都是

하다百花樓는百花潭上之樓  
라○東북그로少城을비라오니고지넉예고도하앗

누니온카짓곳픈노판誰能載酒開金盞  
樓는任어루듯오도다

取佳人舞繡筵 취佳人(취) 舞(춤) 繡(수) 筵(문) 취佳人(취) 舞(춤) 繡(수) 筵(문)

취(취) 佳人(취) 舞(춤) 繡(수) 筵(문)

黃師塔前江水東 春光嬾困倚微風 黃(황) 師(사) 塔(탑) 前(전) 江(강) 水(수) 東(동) 春(춘) 光(광) 嬾(람) 困(곤) 倚(의) 微(미) 風(풍)

黃(황) 師(사) 塔(탑) 前(전) 江(강) 水(수) 東(동) 春(춘) 光(광) 嬾(람) 困(곤) 倚(의) 微(미) 風(풍)

可愛深紅愛淺紅 可(가) 愛(애) 深(심) 紅(홍) 愛(애) 淺(선) 紅(홍) 可(가) 愛(애) 深(심) 紅(홍) 愛(애) 淺(선) 紅(홍)

可(가) 愛(애) 深(심) 紅(홍) 愛(애) 淺(선) 紅(홍)

黃四娘家花滿蹊 千朵萬朵壓枝低 黃(황) 四(사) 娘(녀) 家(가) 花(화) 滿(만) 蹊(기) 千(천) 朵(도) 萬(만) 朵(도) 壓(압) 枝(지) 低(저)

黃(황) 四(사) 娘(녀) 家(가) 花(화) 滿(만) 蹊(기) 千(천) 朵(도) 萬(만) 朵(도) 壓(압) 枝(지) 低(저)



連戲蝶時時舞自在嬌鶯恰恰啼

는時時에춤츠고自在호아로  
다온곳고리호호히우낫다

不是愛花即欲死只恐花盡老相催

스라호앗마리라이고즐스라호야셔끈  
죽고져호미아니라고지업스면늘구미셔

繁枝容易紛紛落嫩蕊商量細

직저해니라오  
細開한가지는쉬이어즈러이더고보다라  
온곳부리는쉬아러고리프낫다

草古詩一首 律詩二首

# 除草

草有害於人曾何生阻脩

言草之毒者一不  
必生於遠地也

라○프리사르미게  
나니엇티일즉면제  
가나리오

其毒甚蜂

蔓其多彌道周

그모니로문  
그하문기리  
구비예고

도다  
清晨步前林江色未散憂

물고개해  
압수프레

芒刺在我眼焉能待高

秋  
言急於除去  
라不待  
秋日之枯萎  
니

霜雪一露凝蕙葉亦難留  
이노  
기들우리오  
노문호  
노문호

호면이우물주물나리  
호면이우물주물나리  
호면이우물주물나리  
호면이우물주물나리

미이러 **荷鋤先童稚** 日入仍討求 討求是也

더원사라 호미에이아히로우몬져 **轉致水**

**中央豈無雙釣舟** 言釣舟로載而棄水中也

게호니 잇테 두고기 **頽根易滋蔓** 敢使依舊

쇼 모이느 모로 애므레 **自茲藩籬曠** 更覺松竹幽

잇게 **自茲藩籬曠** 更覺松竹幽

대외 **不可闕疾惡**

**信如讎** 것아취로몬眞實로怨讎

라

# 庭草

赫之草經寒碧庭春入眼濃  
赫人프리치위르  
다내야프르니별

赫赫比比키 누대舊低收葉舉新捲捲牙言  
드러 든 겁 도 다

垂收斂之葉逢春而舉起  
之芽 重疊而生也 1 라 0 때 1 주 1 1 주

리赫된니피니르앗고새그리步履宜輕過  
기댓는어미여리바리로다

開筵得屢供  
供은草色 1 供筵也 1 라 0 신

조은요문아두라  
看花隨節序不敢強為

庭草詩

卷

容 容은容飾也 | 라 곳보문時節을조차

薰陵

摧折不自守 秋風吹若何 不自守는어려수

것드러제모문守호디문호노소니 暫時花

戴雪幾處葉沉波 아니한별고자누 옛는

레동잇 體弱春苗早 叢長夜露多 웃드미바

분어디이르고피기 江湖後搖落亦恐歲

蹉跎 이거시터되떠러딜서아니時節이

비려 뒤미 後에 후니 仁  
히어 귀리 춘가 전노라

竹 律詩 三首

嚴鄭公宅同詠竹得香字

綠竹半含籜 新梢纔出墻

籜은 竹皮리 ○ 프  
은대 半만 기 프

를어 것고 세가 지는 아  
야라 다매 내와 닷도 다

色 侵書帙 免陰過酒

樽涼

비 춘 書帙 人 十 조 히 侵陵 高 고 了  
늘 酒 樽 人 什 늘 高 지 다 나 矣 다

雨

洗娟娟 淨風吹細細 香

娟娟 은 美也 라 ○  
비 사 스 니 娟 娟 히 조

고 비 르 미 부 니 細  
細 히 其 답 도 다

但令無翦伐 會見拂雲長

오직히여곰버히디마라모로매  
구루물별이저기로문블디로다

從韋二明府續處覓綿竹三數叢

華軒藹藹他年到綿竹亭亭出縣高華軒은指明府

之軒이라綿竹은竹名이라○빛난軒檻이藹藹하디너느히예나르러가니綿竹이노

피그을히내江上舍前無此物幸分蒼翠拂

波濤江上舍는浦의浣花溪上舍也이라○

른거슬는화보내야  
물겨를별일게하라

苦竹竹名이라

青冥亦自守軟弱強扶持青冥은指言山也

모몬가젓도소니보드라와味苦夏蟲避叢

卑春鳥疑고마시쁘니녀르멧벌어지어여가

다軒墀曾不重剪伐欲無辭此階墀에不種

伐之니라軒墀에일즉重히너기다아니

幸近幽人屋霜根結在茲幽人은南自謂

지비갓가어오의니서리옛블

木古詩七首律詩七首



古栢行

孔明廟前有老栢柯如青銅根如石夔州廟

孔明入廟入 알귀늘근작남기깃노  
니가지논프른구리외근고불휘논돌근도

다 霜皮溜雨四十圍黛色參天二千尺

거프리비저저마은아는미오프른 君臣已  
비치하늘헤다호니二千자히로다

與時際會樹木猶為人愛惜謂劉備孔明

其人故로愛其樹也 | 라○ 남금과臣下과  
호마時로다只맛드르니나모도오히려사

르미스랑호요 雲來氣接巫峽長月出寒通  
미드외엿도다

木言十八

雪山白 구루미 오니 氣運이 巫峽이 간 뒤니  
엇고 드리도 드니 什늘 호문 雪山이

하연도디스 憶昨路繞錦亭東 先主武侯同閔

宮 先主는 劉備 오 武侯는 孔明이라 成都에  
武侯入廟附先主廟호니라 ○티 주음

미기글 흘錦亭東 녀그로 버므리 가문 사랑 崔  
호니 先主와 武侯와 기 폰 宮이 호 뒤러라

鬼枝榦郊原古窈窕丹青戶牖空 노 폰 가 지  
와 웃듬과

미햇 두 들 게 네 루 외 니 김 수 落落盤踞雖得  
원 쉼은 호 윤 戶牖 | 뷔 엇 더 라

地冥冥孤高多烈風 落落은 高阜이라 ○ 높  
고 불 휘 거 려 비 루 什 호

어 더 시 나 아 오 라 히 외 로 외 扶持自是神明  
오 노 파 시 나 아 온 번 르 미 하 도 다 扶持自是神明

力正直元因造化功이神明의 힘으로 소니

正直호은본디로造化大廈如傾要梁棟萬本

回首丘山重큰지비하다가가울면梁棟일

萬의그어가노라미리문도르려不露文章

世已驚未辭前翊伐誰能送비출나도디아니

아놀라나나비휴문마다하디아아苦心豈免

容螻蟻香葉終經宿鸞鳳야미드리슈문엇데가

하리오곳다운니픈只志士幽人莫怨嗟

古來材大難為用

言有材者一不得見用也

隱은사사근근은은怨원嗟사하하디디말말라라네네로로오오매매  
材재實실이이큰큰거거는는비비유유미미어어려려우우니니라라

四松

四松初移時大抵三尺強

네소남기취엄음  
겨시물제大抵은

의석자남즉  
능터나라

別來忽三歲離立如人長

여여의  
오

매은드시세히니병으러서  
니사르미기리와근도다

會看根不拔莫

計枝凋傷

리모로매볼희싸히다아니호문보  
리니가지의빛드러허루문혜지

아니  
노라  
幽色  
幸秀  
發疎  
柯亦昂  
巖

幽深은비  
치幸히秀

發하니 드믄가지 **所**挿小藩籬本亦有隄防

終然振撥損得愧千葉黃振은音무이아

논양이라籬本護松이러니이제허리니러  
실시니피이우니라○고자뒗논취근올흔

本來佐막졸오미잇티니무츠애다딜어  
야비리니즈문니피이우리누리호문시러

금붓그**敢**為故林主黎庶猶未康言兵亂애

其居니况敢保松乎○구의여넷수프  
넷님자히로라하야리아百姓도오히러復

安티몬**避**賊今始歸春草滿空堂寶應元年

蜀亂하야遊梓閬하다가廣德二年春에再  
來蜀하니라○盜賊을避하야둔니다가이

제아비긋도라오니 보릿프  
覽物歎衰謝及

茲慰淒涼時物을 보고 늘 그 을 嗟 歎 하 다 니

吹清風為我起洒面若微霜물고니 비고미나

足以送老婆聊待偃蓋張나치 但라니 微微

老婆南自謂라 偃蓋는 謂松也라

我生無根蒂配爾亦茫

茫無根 蒂는 言 飄泊 無定 하야 不得 與松 으

有情且賦詩事迹兩可

忘些디이심시그를짓노니勿矜千載後

慘澹蟠穹蒼言千載之後에勿誇參天而長

프은後에慘澹히하늘해  
서러슈물矜誇하디말라

病栢

有栢生崇岡童童狀車蓋狀하노은은의해

옛야양지늘위偃蹇龍虎姿主當風雲會蹇

은高兒라偃蹇하야龍과바의일글은

다神明依正直故老多再拜神明이正直호





글위드  
릿도다  
客從何鄉來  
好立久吁怪  
客自謂라

나그내는어느  
怪異히너타  
吁嘆호물로  
조차와  
라  
靜

求元精理  
浩蕩難倚  
賴  
善細思天理  
道

不可賴倚而明徵也  
之亂  
元精理  
求

호요니浩蕩호야비  
아르미이립도다

### 病橘

群橘少生意  
雖多亦奚為  
群橘木이  
비  
한

惜哉結實小  
酸澁如棠梨  
棠子  
有赤白

不食言

二色하니라 ○ 늘 프다 여 름 위 조미 **剖之盡**

작그 나 석 오 벨 위棠梨 맛 곧 도 다

**蠹蟲采掇爽其宜** 言不宜采掇也 라 ○ 蚶

오 매 맛 당 호 모 **紛然不適口豈止存其皮** 노

슬히 업 서 거 플 익 름 이 삼 분 아 니 라 이 배 맛

다 몬 하 다 니 름 가 라 ○ 이 즈 라 이 이 배 맛 디

몬 하 니 엇 테 그 프 **蕭蕭坐死葉未忍別故**

리 이 삼 익 름 이 리 오 **枝** 蕭蕭는 風聲이라 ○ 비그 매 붙이 노 **玄冬霜雪積况乃迴風吹** 는 페 사 핫 기 는

하 몬 미 회 로 다 **嘗聞蓬萊殿羅列瀟湘姿** 瀟湘

有橘田橘洲<sub>하</sub>나<sub>하</sub>每歲入貢<sub>하</sub>나<sub>하</sub>라<sub>하</sub>○  
 이<sub>하</sub>즈<sub>하</sub>드<sub>하</sub>로<sub>하</sub>나<sub>하</sub>蓬萊殿에<sub>하</sub>瀟湘<sub>하</sub>엇<sub>하</sub>양<sub>하</sub>지<sub>하</sub>버<sub>하</sub>렛<sub>하</sub>도<sub>하</sub>  
 다<sub>하</sub>此物歲不稔王食失光輝<sub>하</sub>稔<sub>하</sub>은<sub>하</sub>熟也<sub>하</sub>라<sub>하</sub>  
 食이<sub>하</sub>나<sub>하</sub>言橘病不熟<sub>하</sub>야<sub>하</sub>無<sub>하</sub>以<sub>하</sub>供<sub>하</sub>貢<sub>하</sub>하<sub>하</sub>나<sub>하</sub>王<sub>하</sub>  
 食에<sub>하</sub>無<sub>하</sub>光也<sub>하</sub>라<sub>하</sub>○이<sub>하</sub>거<sub>하</sub>시<sub>하</sub>歲에<sub>하</sub>부<sub>하</sub>디<sub>하</sub>야<sub>하</sub>나<sub>하</sub>  
 하<sub>하</sub>나<sub>하</sub>님<sub>하</sub>금<sub>하</sub>자<sub>하</sub>사<sub>하</sub>寇盜尚憑陵當君減膳時汝<sub>하</sub>  
 메<sub>하</sub>비<sub>하</sub>치<sub>하</sub>업<sub>하</sub>도<sub>하</sub>다<sub>하</sub>  
**病是天意吾愁罪有司**<sub>하</sub>言當禍亂<sub>하</sub>야<sub>하</sub>天子<sub>하</sub>  
 나<sub>하</sub>나<sub>하</sub>수<sub>하</sub>橘之病은<sub>하</sub>天意에<sub>하</sub>使<sub>하</sub>吾<sub>하</sub>君<sub>하</sub>으로<sub>하</sub>도<sub>하</sub>欲<sub>하</sub>減<sub>하</sub>  
 膳이<sub>하</sub>어<sub>하</sub>는<sub>하</sub>反<sub>하</sub>罪有司<sub>하</sub>之<sub>하</sub>不<sub>하</sub>供也<sub>하</sub>라<sub>하</sub>○盜賊<sub>하</sub>  
 이<sub>하</sub>오<sub>하</sub>히<sub>하</sub>려<sub>하</sub>곤<sub>하</sub>외<sub>하</sub>나<sub>하</sub>나<sub>하</sub>음<sub>하</sub>故物膳<sub>하</sub>디<sub>하</sub>르<sub>하</sub>실<sub>하</sub>말<sub>하</sub>當<sub>하</sub>  
 有<sub>하</sub>司<sub>하</sub>罪<sub>하</sub>주<sub>하</sub>물<sub>하</sub>憶<sub>하</sub>昔<sub>하</sub>南海使<sub>하</sub>奔騰<sub>하</sub>獻<sub>하</sub>荔枝<sub>하</sub>百<sub>하</sub>馬<sub>하</sub>  
 시<sub>하</sub>름<sub>하</sub>하<sub>하</sub>노<sub>하</sub>라<sub>하</sub>

土寺十八

十八

林言一

死山谷到今者舊悲借漢入南海一獻荔枝

紀言貢荔枝之弊言나라 ○ 소 랑 훈 된 데

南海入使臣이 돈이 너荔枝를進獻言니은

### 枯櫻

蜀門多櫻櫚高者十八九音間音駿이오櫚

有葉無枝言니皮可為繩이나라 ○ 蜀門

其皮割剥甚雖象亦易朽言그거 프 를 버니

하 나徒布如雲葉青青歲寒後言니

치운後에 퍼러하  
야흐갓뻬도다  
交橫集芥芥凋喪先蒲柳

○蒲柳는 생澤中하느니  
望秋先零하느니라  
연비라 두미蒲柳

라와몬傷時苦軍乏一物官盡取  
取言蜀人이

야賣充軍需也  
이라○이時節에  
甚히軍糧

이업什一物이라  
도구위에혀다  
아오물슬

라노嗟爾江漢人  
生成復何有  
슬프다  
너江漢

미여사라이슈  
은有同枯  
稷木使我沉歎  
久

이운稷木과  
그로死者即已  
하여가피슬호  
물오라게하  
느다

休生者何自守  
주그나  
논곧하  
말려나와

가려 시 秋秋黃雀卓側見寒蓬走 卓은與啄으로同

다 〇우르 적시 노黃雀이이극 주리 나니 念爾

形影乾摧殘沒藜莠 네의 열글와그르메든

러 프 어 리 예  
비릿 도 다

### 枯槁

瘦槁枯嶢嶢鄉黨皆莫記 槁은音南이니葉似桑고子似杏

而酸 하니라嶢嶢은高貞이라莫記는이은

다 〇우르 적시 노黃雀이이극 주리 나니 念爾  
不知幾百歲慘慘無生意

몬하리 로다 뎡즈 몬히오  
슬피사 른쁘 디업도다  
上枝摩皇天 下根

蟠厚地 불휘는듯거 운사해서렛도다  
巨圍

雷霆杵萬孔 蟲蟻萃  
니 큰 들에 글벼라기 배티

가야 미와 凍雨落流膠 衝風奪佳氣  
夏月暴

可燒 呼為凍雨 一니 카 枿木에 有膠 一如香

다니 배 부는 비 리 문아 름  
白鵠遂不來 天雞為

愁思 枿木이 既枯 하야 白鵠 天雞 一不可棲  
止일서 不來 而愁也 一라 白鵠이지

스르오디아 니코 天雞 猶含棟梁具 無復霄

上詩  
九

漢志良工古昔少識者出涕淚

言此撫也雖枯亦猶可

為棟梁이언마른良匠을未遇故로識者一傷之니라○오히려棟梁잉크름게슬며것

고佐하늘해을아갈쁘든임도다어딘工匠이테룩져그니알사르문는으를내놓다

種榆水中央成長何容易截承金露盤

不自畏漢武帝作承露盤言니라梟梟는弱魚一라言榆木이易長이언마른然

承金露盤言면其質本柔言야難以撐柱니以此小入의任大事而必至顛覆言다○

느름남글묵가온뒤시르니스라오미즈모

쉽건마는버혀金露盤은바타면보드랍거니스의로저프디아니후리아



海棕行

左縣公館清江濱海棕一株高入雲

左綿州

니在涪水之左也 一라○左綿州○구잇지비

과구릉서리龍鱗犀甲相錯落蒼稜白皮十

抱文

龍인비늘와犀牛의甲이서르섯것는

로비치自是衆木亂紛紛海棕焉知身出群

衆言

木이自不與衆으로並也라○스식로이

出호문알리오 移栽北辰不可得時有西

域胡僧識

上句言欲移植帝宮이라도不

非其地而中國人無識者하니蓋傷之也  
이라○宮闕에 옮기다  
가심극물可히언디  
몬흐리로소니時에西域  
옛되증곳아라보듯다

柳邊

只道梅花發那知柳亦新

오직梅花이 펴는  
라니리다웨어

느버드리노새로

枝枝揔到地葉葉自開春

가지마다다제보미해니  
깃도다紫燕時翻翼黃鸝

不露身

고리비時로놀게물두위티  
나디아니하듯다漢

南應老盡霸上遠愁人  
漢南은南之所  
在梓州南一自喻其老

하다霸上은指長安하  
나憶故鄉也라○  
漢南에처당당이늘기  
업스리로소니霸上

안머리처사르모  
기름게하느다

### 高栴

栴樹色宜真江邊一蓋青  
栴樹八비차아도  
아도하느니그르  
이하蓋피리

하도하도다近根開樂園接葉製茅亭  
분취  
에가

가아藥사므는圃를  
일오洛景陰猶合微風  
니페다허茅亭은지  
오라

韻可聽  
부는느하에그  
늘히오히려  
몬고저기  
드림주하도

다尋常絶醉困卧此片時醒  
작.테.그.장.술.醉

이.과.누.우.면.片  
時.에.서.는.다.

嚴鄭公塔下新松得露字

弱質豈自負移根方甫瞻  
바.드.라.은.우.드.문  
잇.테.라.가.져.시.리

오.오.고.거.삼.군.분.희.문.외  
야.하.로.디.를.보.노.라 細聲聞玉帳疎翠近

珠簾  
그.는.스.리.를.玉.帳.에.서.드.르.리.로.소  
나.첫.긴.프.른.비.튼.珠.簾.에.가.깝.도.다 未

見紫煙集虛蒙清露露  
이.는.소.삼.기.크.디.문  
는.은.니.르.니.라.이.분

근.너.모.도.문.보.다.문.하.리.로.소.니  
은.은.이.스.의.저.주.를.虛.히.나.는.다 何當一

丈歌蓋擁高簷 謂松이狀如偃蓋也 | 라 ○

은蓋 노픈집기  
슬글비리려노

### 憑韋少府班覓松樹子栽

落落出群非 檉柳青青不朽 豈楊梅 檉 노音

이노泛言松之非柳梅之比  
호니라 ○ 노파  
무세내와다  
호미  
아니오  
피리호야

欲存老蓋 千年意為覓霜根 아니호미  
호미  
아니오  
피리호야

數寸栽 霜根노言松根이耐霜也 | 라 ○ 늘  
아니호미  
호미  
아니오  
피리호야

리셋  
불휘두이  
寸만호  
호  
栽種은為호야호노라

木言十八

憑何十一少府邕覓橙木數百栽

草堂塹西無樹林非子誰復見幽心草堂入

人년키나모수프리업스니그다아飽聞橙

木三年大與致溪邊十畝陰橙는音歌라甫

以橙로為薪하느니三年에可燒나라十

畝陰은十畝애서므게보백라하논아리라

○橙木이세히예크물비브르드릿노니시

樹間

岑寂雙甘樹婆娑一院香岑寂은高靜也

두가지 子나 남기이 婆娑 交柯 低几 杖垂 實磔

衣裳 加지 치기 几와 막대 에는 죽은 고여 滿

歲如 松碧 同時 待菊 黃 如松碧은 言終歲히

호취 菊 花 를 기 들 위 누 리 호 리 로 다 幾 迴 露

葉 露 乘 月 坐 胡 床 뜻 디 위 를 니 플 저 지 는 이

가 니 스레 露 비 출 다 胡 床 에 坐

惡樹

獨 遠 虛 齋 徑 常 持 小 斧 柯 翫 道 長 常 杖 近

土寺十八 三三

木言十八

도치 른 가 幽陰成頗雜惡木翦還多 幽深

이러 크 모 첫 깃 너 사 오 나 枸杞同吾有雞 은 남 크 너 허 도 도로 하 도 다

棲奈汝何 枸杞一名地骨皮니服之하면 輕身益氣니라翦去惡木하라

蔽障故로 枸杞 遂其生 이 언 마 른 但翦去 木枝似妨 雞柄 一 니 라 〇 枸杞 上 본 지 내 깃

논 개 시 어 너 와 들 기 깃 方 知 不 材 者 生 長 護 호문 네 게 엇 데 호 려 요

婆娑 바디 몬 호 촌 質 은 나 기 루 미 후 절 업 시 婆娑 호 문 비 야 호 로 아 노 라

分類杜工部詩卷之十八





